

간경변증과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의 감별 진단에 있어서
antithrombin III (AT-III) 측정이 갖는 임상적 의의

국립경향병원 내과 신요식*, 김성민, 김준형, 김윤권, 김소연, 김영중, 조민구, 이권진

간세포암을 진단하고 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는데 가장 유용한 종양 표지자인 AFP는 간세포암 같은 악성 간질환에서 종종 증가되지 않고,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같은 양성 간질환에서는 종종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AFP의 증가유무만으로는 원인 질환이 양성인지 악성인지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간세포 및 혈관 내피 세포에서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간경변증과 같은 간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의미있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 AT-III를 측정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을 감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종양 표지자로서의 AT-III의 의의를 밝히고자 연구를 하였다.

1997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본원을 방문한 간경변증 환자 53명,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 40명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chromogenic 법을 사용해 AT-III를 측정하였다.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 40명 중 11명을 TACE를 시행한 후 AT-III를 추적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AT III 값이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50.26 ± 18.78 %,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에서는 73.31 ± 23.76 %로 측정되어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에서 간경변증 환자보다 AT-III 수치가 의미 있게 증가되어 있음을 보였다. ($p = 0.001$)
- 2) AT III 수치가 60 % 이상을 양성으로 하였을 때, 혈중 AFP가 20 ng/ml 이상으로 상승된 간경변증 환자 18명과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 24명을 감별 진단할 경우 민감도는 75.00 %, 특이도는 61.11 %이었다.
- 3)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에서 TACE 후에 AT-III가 의미있게 감소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AT-III의 측정은 AFP가 상승된 간경변증 환자와 간경변증에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를 감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폐 침범을 동반한 스위트 증후군 1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최영주, 박완범, 방지환, 김의석, 오명논, 최강원, 윤정환, 이효석

스위트 증후군은 다양한 악성 종양 및 preneoplastic state와 관련되어 발병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가장 흔히 동반되는 악성 종양은 백혈병 및 골수증식성 증후군이며 고형암에 병발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형암에 동반된 증후군에서 폐를 침범한 증례는 문헌에 보고된 적이 없다. 저자들은 간암 환자에서 폐를 침범한 스위트 증후군 1례를 경험하였기에 기술한다.

증례 : 56세 남자 환자가 간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간암으로 진단받고 혈관 색전술을 시행받았다. 제 5입원일째부터 발열이 있어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제 13 입원일째, 열은 지속되었으며 이마에 통증 동반한 붉은 홍반성 결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후 결절은 전신으로 퍼져나갔으며, 크기와 수가 증가하고 궤양이 생기면서 짙은 갈색의 농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반혈액 검사상 WBC $15300/\text{mm}^3$, Hb 10.6mg/dL , Plt $203000/\text{mm}^3$ 였으며 혈청학적 검사상 RF, ASO, FANA 모두 음성이었다. 피부 병변의 분비물에 대한 그람 염색에서 백혈구나 세균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배양에서 자라는 균은 없었다.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부 병변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제 24 입원일째부터는 흉부단순촬영상 다발성 결절성 염증이 관찰되었다. 피부 생검상 피하 및 혈관주위의 중성구 침윤 소견을 보여 스위트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후 환자의 열은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피부 및 폐의 결절은 감소하는 임상적인 호전 보여 스테로이드를 감량하며 퇴원하였다.